

정서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간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같은 또 다른 개인의 정서적 요인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아동기 사회화 경험에 따른 발달적 산물로 간주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특성 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양식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정서표현양가성을 조사하여 아동기 경험이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경험하고 정확히 인식하여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개인적 특질의 하나로서 정서표현성이 주목받게 되었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기존의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들은 정서표현성과 개인 내적, 외적 관계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를 연결시키고 있다.(Collins & Miller, 1994; Cox & McCay, 1982; DePaulo, 1992; Emmons & Colby, 1995; Mongrain & Vettese 2003; Sullins, 1989;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한정원, 1997). 한편 최근의 연구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정서표현성만으로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서표현성은 편안하게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 괴롭게 정서를 억제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함을 강조한다(King & Emmons, 1990; Pennebaker, 1985). 실제로 표현을 하지 않는 억압형 사람들이 표현하는 민감형 사람들보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덜 표출한다고 밝힌 연구들은(Bell & Byrne, 1978), 정서표현결핍 이면에 다른 정서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Pennebaker(1985)는 정서표현의 결핍보다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제해야 한다는 태도사

이의 갈등이 자율신경계가 만성적으로 각성하도록 하여 신체 질환을 발전시킴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를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의 갈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을 정서를 표현하려는 목표가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목표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서표현양가성이 자존감, 삶의 만족과는 부적 상관을, 우울증, 강박증, 신체화 장애, 불안과 같은 증후와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였으며,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 보다는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mmons & Colby, 1995).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여 우울감이 높으며(하정, 1997),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외, 1997; 최해연, 2008; 한정원, 1997) 어머니의 경우 양육태도가 민감감하지 못해 문제 행동 수준이 높은 자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배민정, 정운경, 2008).

이렇듯 정서표현양가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연구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며 무엇에 의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되었다. 가령, 연구자들은 정서표현양가성과 관련된 핵심적 요인으로 정서표현의 기능과 결과에 대한 고유의 표상이나 신념을 제안하였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Jones, Abbey & Cumberland, 1998).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또는 표상이 특정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지 표현을 억

제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Mongrain과 Vettese(2003)는 정서표현에 대하여 갈등하거나 억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서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정서표현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해연과 민경환(2005)은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표상과 개인적 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척도'를 개발하여, 표현 행동 및 그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표현 억제 목표를 생성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욕구와 갈등을 일으켜 개인을 양가적 상태에 있게 함을 밝혀, 정서표현양가성과 관련된 내적기제로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정서표현양가성의 직접적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즉,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반드시 정서표현양가성에 선행하지 않아 변인들간의 인과적 방향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두 변인을 모두 설명하는 선행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적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서적 특성 또한 개인 내 기질적 소인과 외적 환경의 두 측면이 모두 작용하나 정서적 특성은 사회관계적 맥락에서 경험되고 조절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외적 환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며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화 요원(socializer)이다(Goleman, 1995). 따라서 개인의 정

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이와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윤경, 2008).

이와 같이 정서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는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으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에 대한 대화, 정서표현성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그들은 자녀가 정서를 표현했을 때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현과 조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도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Davies & Cummings, 1994; Dunsmore & Halberstadt, 1997; Thompson, 1998). 특히 이들은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욱 중요한 조절의 대상으로 보다 중요한 정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Eisenberg et al., 1996; Dunn, Brown, & Beardsall, 1991).

실제로 Fabes, Eisenberg 그리고 Bernzwing(1990)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을 크게 지지적, 비지지적 태도로 나누고 각각 3가지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으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격려하는 표현격려반응, 자녀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 초점적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초점적 반응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는 최소화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처벌을 하는 처벌 반응,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 자신이 경험한 심리적 괴로움,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심리적 고통 반응들을 포함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공감 능력이 높았고 보다 나은 대처, 지각된 주의 조절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능을 보였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6).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은 자녀가 정서를 다룰 수 있게 기꺼이 돕는 것과 결합될 때, 자녀의 높은 수준의 각성 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이 있었다(Gottman et al., 1996).

반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는 것을 획득하게 된다(Buck, 1984). 자신의 정서 표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정서 경험과 처벌을 강하게 연합하여 정서 유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하고(Gottman, Katz & Hooven, 1997), 정서적으로 유발된 각성수준은 이를 더 높이거나 연장시켜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 표출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6). 또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현을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 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출의 의미를 탐색하거나 이를 다루는 방식을 획득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실제로 과거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인 반응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최소화 반응은 회피대처와, 심리적 고통반응은 우울이나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Eisenberget al., 1996;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요컨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 대해서 갖는 신념과 이를 통해 경험하는 갈등에 핵심적 선행요인으로 가정되나 그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 등(1998)이 제안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정적인 신념과, 정서표현에 대하여 갖는 갈등(정서표현양가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알아보고, Eisenberg 등이 제안한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과 이에 따른 서로 다른 어머니의 양육 패턴이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갖게 되는 신념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시도하는 정서조절의 내적과정을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자극에 대한 표현이나 전략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 후기(13~15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 직접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양식을 질문하는 대신에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지

각하는 반응양식을 보고하게 하여 지각된 양육행동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직접적 보고보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의 정서, 행동 특성들과 더 강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Rohner & Pettengill, 1985).

이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6년 학생 250명과 서울, 충남지역 중학교 2~3년 학생 250명, 총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 82부가 제외되어 총 418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중 남자는 162명(39%), 여자가 254명(61%)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AEQ-K)

본 연구에서는 King & Emmons(1990)의 정서표현 갈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2008)이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를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AEQ-K는 정서표현 상황에서 상반되는 목표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서표현 및 조절, 정서표현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양면성 혹은 양가감정을 측정한다.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대상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 맞지 않는 질문(19번 문항)은 삭제하여 총 20문항으로 사용하였고, 리커트식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 상에 평정한다. 하위 요인 군집 간 상관관계가 높아 단일 구성 개념으로 본다는 King &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 척도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질문지(BEE)

최해연과 민경환(2005)이 정서표현규칙이나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척도(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BEE)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의 기능이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며, 정서표현의 기능으로 자기보호, 친사회성, 유용성, 관습성 등의 내용영역을 포함한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는 '도구-관습적 신념'(정서표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일반화된 기대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회관습적 기대)과 '정서-관계적 신념'(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갈등을 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서적 보상을 주지 못한다는 믿음)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질문지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도구-관습적 신념이 .79, 관계-정서적 신념이 .79, 전체 척도가 .87 이었다.

지각형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 측정 도구(CCNES)

Fabes, Eisenberg 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의 어머니의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는 박유경(2009)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13세 이전의 어머니 반응을 회고하여 보고하는 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6개의 어머니 반응 범주로 구성되며, 총 72문항이다. 어머니 반응 유형은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표 1. 각 변인 간 상관관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4
1. 지지적반응	-											
1-1. 표현격려	.87**	-										
1-2. 정서초점	.95**	.74**	-									
1-3. 문제초점	.92**	.65**	.86**	-								
2. 비지지적반응	.07	.13**	.03	.04	-							
2-1. 심리적고통	-.27**	-.20**	-.28**	-.26**	.74**	-						
2-2. 처벌	.08	.14**	.05	.05	.91**	.55**	-					
2-3. 최소화	.29**	.32**	.23**	.24**	.88**	.44**	.73**	-				
3. 부정적신념	.00	.07	-.01	-.05	.28**	.16**	.30**	.25**	-			
3-1. 도구관습적	.03	.09	.01	-.02	.29**	.16**	.32**	.24**	.94**	-		
3-2. 관계정서적	-.02	.03	-.03	-.07	.23**	.13**	.24**	.21**	.92**	.72**	-	
4. 정서표현양가성	-.07	-.07	-.07	-.05	.24**	.19**	.21**	.20**	.55**	.46**	.57**	-
M	2.81	2.42	2.98	3.02	2.22	2.42	1.99	2.24	2.47	2.34	2.61	2.99
SD	.72	.74	.85	.77	.47	.46	.60	.61	.77	.81	.86	.67

* $p < .05$, ** $p < .01$.

Encouragement EE), 정서초점 반응(Emotion Focused Reaction, EFR), 문제초점 반응(Problem Focused Reaction, PFR),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 Reaction, DR),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 PR), 최소화 반응(Minimizing Reaction, MR)으로 구성된다. Eisenberg 등 (1998)의 연구에서 이들 6개 범주를 다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지지적 반응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 비지지적 반응의 내적합치도는 .90 이었다.

결 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간의 상관관계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전

반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간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는데($r=.55, p<.01$), 구체적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중 관계 정서적 신념에서 더욱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57, p<.01$). 우선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표현양가성, $r=.24, p<.01$; 부정적 신념, $r=.28, p<.01$).

어머니의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 수준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신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반응양식 수준에 따라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CCNES

표 2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의 고·저 집단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t-test 결과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신념				df
		N	M	SD	t	N	M	SD	t	
표현격려	고	67	2.90	0.62	-1.52	67	2.47	0.79	.85	149
	저	84	3.07	0.73		84	2.36	0.87		
문제초점	고	67	2.87	0.71	-1.19	67	2.40	0.89	-.64	119
	저	54	3.02	0.69		54	2.51	0.94		
정서초점	고	60	2.82	0.67	-2.11*	60	2.38	0.79	-.48	124
	저	66	3.08	0.73		66	2.45	0.90		
지지적 반응	고	68	2.85	0.71	-1.59	68	2.44	0.85	0.01	132
	저	66	3.04	0.73		66	2.44	0.94		
심리적 고통	고	76	3.28	0.63	3.74***	76	2.71	0.72	2.56***	137
	저	63	2.86	0.71		63	2.38	0.83		
처벌	고	72	3.18	0.68	3.57***	72	2.79	0.71	5.43***	129
	저	59	2.75	0.69		59	2.06	0.82		
최소화	고	67	3.32	0.64	3.41***	67	2.72	0.77	3.86***	137
	저	72	2.94	0.67		72	2.22	0.75		
비지지적 반응	고	73	3.25	0.64	3.82***	73	2.70	0.74	4.20***	136
	저	65	2.82	0.70		65	2.16	0.79		

* $p<.05$, ** $p<.01$, *** $p<.001$.

점수에 따라 어머니 집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양식의 평균 점수(지지적, 2.81/비지지적, 2.22)에서 1표준편차(지지적, 0.72/비지지적, 0.47) 이상 높거나 낮은 점수를 나타낸 집단을 각각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점수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지지적 반응의 고·저집단 간에는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의 고·저 집단 간에는 정서표현양가성($t(136)=3.82$, $p<.001$)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t(136)=4.20$, $p<.0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 반응을 보였다고 지각했던 고집단에서 저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나타났다.

보다 정밀하게 어머니의 반응양식에 따른 자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지지적/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차원에 따라 고집단과 저집단을 각각 선정하여 두 집단 간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선정 방식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고·저 집단을 구성한 방법과 같다. 전반적인 지지적 반응의 하위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적 반응양식 중 정서초점($t(124)=-2.11$,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서초점 반응의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므로, 어머니의 정서초점 반응이 자녀의 정서관련 특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의 모든 하위차원인 심리적고통($t(137)=3.74$, $p<.001$; $t(137)=2.56$, $p<.001$), 처벌($t(129)=3.57$, $p<.001$; $t(129)=5.43$, $p<.001$), 최소화($t(137)=3.41$, $p<.001$; $t(137)=3.86$,

$p < .001$)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신념의 유의미한 차이가 모두 나타났다(표 2 참조).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하위차원에 따른 군집분석

앞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양식의 각각의 차원들에 따라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이러한 비지지적 반응의 각 하위차원의 조합의 상대적 수준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 유형에 근거한 자녀의 정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차원을 토대로 군집을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지지적 반응 하위차원의 세 개 변인들인 심리적 고통, 처벌, 최소화 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 계수의 변화를 검토하였을 때 4개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차원에 따른 각 군집의 양상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군집 1(73명, 전체의 17%)은 심리적 고통, 처벌, 최소화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서 ‘전반적 비지지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130명, 전체의 31%)는 심리적 고통수준이 평균보다 낮고 처벌과 최소화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아이의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거나 회복시키려고 하나 자녀 중심적이기 보다는 어머니 중심으로 반응하는 집단으로서 ‘자기중심적 적극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63명, 전체의 15%)은 심리적 고통수준이 평균보다 높고 처벌과 최소화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서 자녀에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회피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152명, 전체의 36%)는 심리적 고통, 처벌, 최소화 모든 수준에서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서 ‘지지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별 군집변인의 점수들은 군집분석의 정의상 이미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Hair & Black, 2000), 따로 군집 간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네 개의 군집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점수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를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1. 전반적 비지지적 집단	2. 자기중심적 적극집단	3. 회피적 집단	4. 지지적 집단
심리적 고통	1.40	-0.18	0.77	-0.84
처벌	1.53	0.29	-0.52	-0.77
과소 평가	1.28	0.51	-0.57	-0.82
군집 크기	73(17%)	130(31%)	63(15%)	15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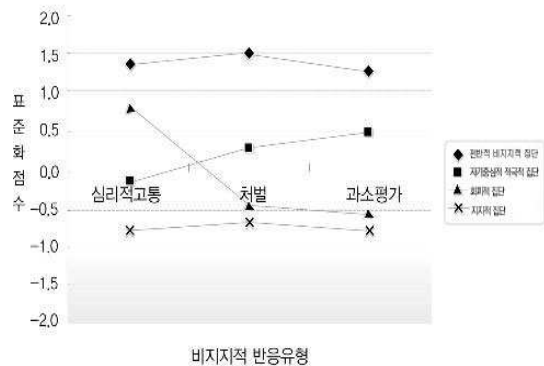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 반응 유형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표 4.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신념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1.전반적 비지지집단	자기중심적 적극집단	회피적 집단	지지적 집단	전반적 비지지집단	자기중심적 적극집단	회피적 집단	지지적 집단
M	3.24	3.08	3.00	2.77	2.71	2.69	2.45	2.16
SD	0.64	0.62	0.71	0.65	0.74	0.71	0.84	0.72
F(3,414)	10.21***				15.27***			
사후검증	4 < 1=2=3				4 < 3 < 1=2			

**p<.001, Tukey로 사후검증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을 종속변인으로 한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있어서 각 군집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표현양가성, $F(3, 414)=10.21, p<.001$; 부정적 신념, $F(3, 414)=15.27, p<.001$).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고통과 처벌 및 최소화에 따른 세 집단들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고, 각 군집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평균점수를 그림 2에 도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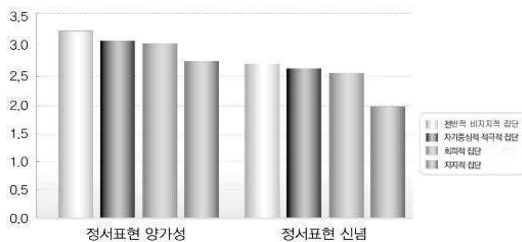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 신념

서 볼 수 있듯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모두에서 지지적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정서표현양가성, $4 < 1=2=3, p<.001$;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4 < 3 < 1=2,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표현/비표현에 기저하는 내면의 핵심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의 정서적 선행 요인으로서 정서표현신념(최혜연, 민경환, 2005), 그리고 발달적 선행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 행동(Eisenberg et al., 1998)을 다루었고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서를 표현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관계-정서적 신념’에서 더욱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혜연(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중 관계-정서적 신념만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나약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도구-관습적 신념은 정서표현의 억제와는 상관이 있었으나 개인의 부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지한다.

다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양식과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관련 특성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으나 어머니의 정서초점 반응양식에서는 고집단과 저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정서초점적 반응이 역기능적 정서관련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냈다. 선행연구에서 지지적인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된다는 발견이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비지지적 반응과 아동의 부정적 결과의 관련성보다 덜 일관적이었고, 덜 강력하였던 것처럼(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8),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특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초점적 반응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 자녀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이는 것은 정서초점적 반응이 다른 지지적 반응에 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반응이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 특성 간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예측되었듯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으로 반응한 경우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점수가 평균이상인 고집단의 자녀들이 저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부정적이고 비지지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서조절이나 문제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문신, 2003; 박유경, 2009; 백미애, 2002; Denham et al., 1997; 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1999;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Hardy, Power, & Jaedicke, 1993).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진심으로 다뤄지지 않고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머니의 반응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최소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의미 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처벌 받게 되면(처벌),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 했을 때, 어머니 자신이 괴롭거나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반응을 받으면(심리적 고통), 자녀는 또 다른 부정적 정서인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향후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자녀로 하여금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뿐 아니라 실제로 정서를 경험했을 때 이를 억제하거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높이 갈등하는 특징을 발달시키도록 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차원인 최소화, 처벌, 심리적 고통에 따라 구별되는 양육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개의 독특한 군집이 발생하였다. 4개의 군집 중

세 하위차원이 모두 높은 '전반적 비지지적 집단'에 속하는 자녀들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자녀들에 비해 역기능적 정서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고통은 평균보다 낮고 처벌과 최소화가 평균보다 높았던 '자기중심적 집단'이 심리적 고통은 평균보다 높고 처벌과 최소화가 평균보다 낮았던 '회피적 집단'보다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 처벌을 가하거나 자녀의 정서표현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거 하려는 '자기중심적 적극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욱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정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소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 '회피적 집단' 역시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적극적 학대 못지않게 자녀에게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는 소극적인 반응 또한 부정적 영향력이 강력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고통 반응이 자녀의 사고 억제와 우울, 불안, 정서표현의 억제와 가장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의 핵심적 특성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발달적 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양육 행동을 제안함으로써 정서적 사회화에 대한 기초 자료와 부모 상담이나 어머니교육의 실제적 장면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정서표현양가성이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대한 발달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이 정서 사회화라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와 기제로 발달되는지에 관한 후

속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가령,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양식이 자녀에게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표상을 매개로 하여 강한 정서표현양가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가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모델을 설정하고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 반응을 회고하여 응답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직접 보고를 통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문신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경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정, 정윤경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발달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문.
- 백미애 (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35.

- 정윤경 (2008). 아동 초기 정서 조절의 발달적 관련 변인: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 및 그 심리적 기제. 한국발달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문.
- 최혜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ll, P. A., & Byrne, D. (1978). Regression-sensitization. In H. London & J. E.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449-485.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 457-475.
- Cox, T., & McCay, C. (1982). Psychosocial factors and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 in the aetiology and development of canc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 381-396.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ePaulo, B. M. (1992). Nonverbal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203-244.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Dunsmore, J. C., & Halberstadt, A. G.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77, 45-6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Emmons, R. A., & Colby, P.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in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Available from authors,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92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Erlbaum.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147-205.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 1209-122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Child Abuse & Neglect, 27*, 199-213.
- Mongrain, M., & Emmons, R. A. (1993). *Influence of induce mood on dependency, self-criticism, conflict, and goal appraisals*.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 Mongrain, M., & Vette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liction.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ullins, E. S. (1989). Perceptual salience as a function of nonverbal expressivenes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4), 584.
- Thompson, R. A. (1998). Early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 25-104). New York: Wiley.
-

1차 원고 접수: 2010. 04. 11

수정 원고 접수: 2010. 05. 14

최종 게재 결정: 2010. 05. 15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Jee-Young Noh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n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For the ends, children aged from 13 to 15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 including AEQ(King & Emmons, 1990), BEE(Haeyoun Choi & Kyunghwan Min, 2005), CCNES(Fabes, Eisenberg & Bernzwing, 199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o their belief on emotional expression. Second, all three types of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Distress reactions, Punitive responses, Minimization responses) have effect on children's Ambivalence and negative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Finally, mothers who were highly perceived in all three nonsupportive reaction type have children who are most high in Ambivalence and in negative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Keywords: Parental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lief on Emotional Expression